

광산구 골목상권 활성화 결실...소상공 리더 100명 배출

오늘 '사장님 아카데미' 37명 수료식...3년 프로젝트 마무리 "지원기반 구축·제도 개선으로 지역 소상공인 역량 높일 것"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상권 도약을 이끌 소상공인 리더 100명을 배출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정부 정책의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17일 오후 구청 7층 운상원홀에서 '2021년 광산구 사장님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한다. 이날 수료식에는 37명이 '교육생' 꼬리표 때고 3기 '광산 장사의 神(신)'으로 새 출발한다. 2019년 첫 아카데미 때부터 목표한 100명의 '장사 전문가'를 육성, 배출해 낸 것이다. 골목상권 활성화는 민선 7기 광산구정의 핵심 시책 중 하나다.

권역별 상인회 조직화, 스마트시범상가 조성, 골목상권 CPR 사업, 사장님 다시서기, 골목상권 브랜드화, 배달뉴스타트업 등 대표 정책사업만 셀 수 없이 많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에 '골목 대장 김삼호'란 별칭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여러 정책 중 사장님 아카데미는 "소상공인에게 투자의 만큼 효과가 나온다"는 광산구의 지론을 확실하게 보여준 대표적 성공 사례다.

1기(30명)의 경우 평균 매출이 22% 늘었고, 2기(33명)는 이보다 높은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기 모두 경영개선에 도움을 얻었다는

수료자가 90% 이상이었다.

방문객 증가, 주요 포털 '광산구 맛집' 검색 1위 탈환, 코로나19 대응 위생관리 교육을 통한 '광산 안심식당' 선정 등도 교육의 힘을 보여주는 성과들이다.

이는 주변 상권에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인들의 교육 욕구를 불러일으켜 교육생 선발 경쟁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졌다.

상인들이 주도해 상권의 분위기, 환경을 바꾸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도산동은 아카데미 2기 수료생을 포함한 지역 소상공인이 중심이 돼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보고, 듣고, 맛볼 수 있는 '오감 콘텐츠'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선운지구, 하남2지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시범상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4차 산업 기술을 입힌 '최첨단 상권'으로 재탄생한 것도 상인 역량 강화, 조직화가 밑바탕이었다.

3년 프로젝트의 대단원을 마무리한 광산구는 이러한 변화를 확산하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광산 장사의 신' 100명을 각 상권 활성화 및 혁신의 거점으로 활용, 지역 소상공인들의 전반적인 역량을 높일겠다는 목표다.

골목상권의 설움을 해소한 '골목형상점가'도 최



최근 광산구청 운상원홀에서 열린 '2021년 광산구 사장님 아카데미-광산 장사의 神' 입학식에서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교육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근 첫 결실을 맺었다. 광산구는 지난 4일 '다문화 집결지' 월곡동과 인접한 산정상인회에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산정상인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각종 정부 공모사업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이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산구가 끈질긴 노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지난 3월 '광산구 골목

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결과다. 광산구는 이를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 개선까지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중기부를 찾아 골목형상점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면적 또는 점포수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심형상점가' 개념을 도입, 지원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한 광산구의 정책 모

델이 정부 정책, 제도의 개선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역량 강화로 지역상권의 밑거름을 발굴하고 키워낸 광산구의 노력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뚫고 나가는 힘이 됐다"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골목상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기반도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우리동네 마을문제 함께 해결해요"

광산구, 주민총회 확대 실시...9월까지 21개 동 순차 개최

광주 광산구가 주민이 직접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주민총회를 올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광산구는 16일 '2021우리동네 행복으로 주민총회'를 각 동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공론의 장이다.

지난해에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동에서만 주민총회를 열었으나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대비해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9개 동도 시범적으로 주민총회를 연다. 광산구 21개 전체 동이 마을 의제 발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지난 2일 도산동을 시작으로 9개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7월까지 주민총회를 연 뒤 12개 주민자치회 동은 7월부터 9월까지 차례로 총회를 열 예정이다.

주민총회에 상정할 마을 의제는 각 동별 주

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계획단을 구성해 분과별 마을 조사를 벌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도출한다.

광산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참여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방식(Zoom, 유튜브)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광산구의 시민참여 플랫폼인 '광산ON(온)' 온라인 투표시스템으로 마을 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주민투표는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온라인 투표는 '광산온'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동별 투표일정에 맞게 투표 사이트가 열린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오프라인 주민총회를 열게 됐다"며 "주민 주도의 실질적 생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로 선운지구 서민 아파트 과태료 폭탄

입주민 90세대 "임대업자 근거당 해지 안해 소유권 이전 늦어져" 억울 광산구 "30일 이내 신고 원칙...최대 70% 감경 세대당 80만원씩 부과"

서민이 모여 사는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해광상그릴라 아파트 90세대가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거주민들은 임대사업자가 분양 계약 체결 후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고 유지하는 바람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데 발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해광상그릴라 아파트 72세대 입주주민은 지난해 8월 14일 임대사업자인 A유한회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뒤늦은 지난 3월 26일야 했다. 계약은 체결했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별도의 18세대까지 포함하면 결국 신고기간이 경과한 세대는 총 90세대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돼 있어 이 경우 6개월 4일을 지연 신고한 경우 해당 된다. 광산구는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해당 72세대에 각 200만원 총 1억4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고 당사자에게 관련 의견서 제출기한을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로, 분양전환 직전 제3자인 A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면서 이번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임대사업자가 각 세대당 1억 5000만원을 불법으로 담보 설정한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도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보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과 관련해 주민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A임대사업자와 수년째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광산구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부과

한 것을 놓고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 K(48)씨는 "국토부에 이번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 했으나 광산구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주민들의 억울함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의견서를 통해 억울함을 주장해 당초 부과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하고, 기간내 납부시 20%감면 규정까지 적용해 세대당 80만원으로 과태료를 감경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주민들은 "A임대사업자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세대만 90세대에 이르는 만큼 이번 광산구가 감경해 부과한 과태료도 7200만원에 해당된다"며 "절차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운지구 해광상그릴라 아파트는 총 219세대로, 2014년 12월 완공한 공공임대아파트이다. 5년 임대기간이 경과한 2020년 1월 분양전환일을 앞두고 A임대사업자가 매입한 후 90세대만을 적격 세대로 구분해 이들 세대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여세대와는 아직도 분양 여부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경품 대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2020년 출자금
3.0%배당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입구)